

시

구름

강대선

아가미를 버들가지에 꿰인 메기가 탁자에 앉아 있다
 팔려온 물빛이 거무스름하다
 물내가 전부였을 것 같은 저 입으로
 뼈끔거리는 허공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고향을 바라보려는 듯 눈을 부라린다

수염은 그가 한 마을의 유지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구름이
 실은 고분이었다는 구깃구깃한 신문기사가 메기 앞에 놓인다
 고분에는 왕이었을 어쩌면 한 고을의 유지였을 사람의 뼈와 금
 으로 된 장신구가 신발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고 한다
 신발이 수염이었을까
 구름 속으로 유영을 하는 메기가 버들가지를 빠져 나온다

한 때는 잘 나갔던 기억으로 살아온 주인공이 허품을 한다 눈물
 이 찢끔거리는 메기가 끓는 탕 속으로 몸을 던진다 구름은 웬지
 메기의 잘 나가던 한 때처럼 쓸쓸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신발처럼 남겨진 버들가지를 허공으로 보내준다
 한 번은 어디론가 훨훨 날아보고 싶었다는
 아버지의 遺志였다

동화 부문 당선 소감

“8년의 기다림...알 속의 동화 세상으로 나간다”



이명선

▲서울 출생
 ▲서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열망이 담긴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좋습니다. 당선통보를 받던 날 해피엔딩 동화의 마지막 문장이 저를 외락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눈물겹게 기쁩니다. 크게 웃어도 좋을 뻔 했는데 조심하게도 입을 막고 방과 거실을 왔다갔다하며 정신이 없었습니다.
 신춘문에 문을 두드린 지 8년, 희망으로 쓰고 고배를 마시고 다시 희망으로 쓰기를 반복하면서 30편을 습작하였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올해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 마음 정리가 필요해서 걸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문득 '하늘 한 번 올려다보고 가져'하는 생각이 들던 날입니다. 비우던 날 채워진 것 같습니다.
 어느 겨울, 해가 떨어진 줄 모르고 동화를 쓰다 창밖에 내린 어둠을 보고 깜짝 놀라 교실을 나오는데 캄캄한 복도와 계단은 또 얼마나 무섭던지 불빛이 참 간절했던 기억이 스칩니다.
 알 속에 자라던 동화가 껍질을 깨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졸작동시가 되어준 모든 분들을 마음에 기억하겠습니다.
 당선통보 날 아침 성경말씀 잊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학교, 센터, 주일학교에서 만난 어린이들, 사랑하는 가족, 창작의 나래 멤버 모두 고맙습니다. 불빛을 비춰주신 서향숙 심사위원님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광주 일보의 명예를 지키며 정진하겠습니다.

시 부문 당선 소감

“시가 내게 자유를 줬지만 어깨는 무거워졌다”



강대선

▲1971년 나주 출생
 ▲전남대 불어불문학과
 ▲조선대 국어교육과 졸업
 ▲현 광주여성고 교사

원고를 보내지 못하고 며칠을 바라보지만 했습니다. 바라봄의 시간 동안 문득 시들이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안에만 가둬 둔 것이었을까.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다시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시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날아간 시
 는 당선 소식을 몰고 돌아왔습니다. 날개가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시
 가 나를 쓴 것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조금 더 가벼워져서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 저에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당선 기쁨을 주신 심사위원님과 광주일보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와 함께 한 시간은
 때 시간이 고통스럽지만 기쁨이었습니다. 허형만 은사님과 정운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의 열정으로 가득한 지송사회, 시빛기반 식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한
 시간들 속에서 제 시는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이 기쁨을 같이 하고 싶습니
 다. 세상에 나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깨가 이전보다 가벼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무게에 짓눌리지
 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이야기를 시에 담고 싶습니다. 제
 시가 추운 세상을 데워주는 따뜻한 구름이 되었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동화 부문 심사평

환상동화 재미있는 전개...문장력·문학성 갖춰



서향숙

▲명지대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1996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등단
 ▲방정환문학상·새빛문학상 등 수상
 ▲작품집 '언뜻에 놀러 온 빗방울' 등 다수

환상성은 동화문학에서 중요한 문학적 요소 중의 하나이다. 동화의 뿌리가 환상성에
 근거해 있기 때문이다. 현대적 환상에서 사건들이 현실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더라도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게 만드는 진실을 갖고 있기도 한다.
 예시를 거처서 본심에 올라온 작품 16편중에서 생활동화 4편, 환상동화가 12편으로 환
 상동화가 대세를 이루었다. 작품 전체의 수준은 기발함과 참신함이 돋보이는 특출한 작
 품은 없었고, 전체적으로 평이한 작품의 수준이었다.
 산고 끝에 1차 본심을 통과한 최종 본심 작품은 3편이었다.
 '춤추는 초록별'은 우위적 환상동화로 확실한 주제 의식과 탄탄한 구성, 상상력이 돋보
 였다. 하지만 '반디불이'란 진부한 소재와 내용에서 독자의 시선을 끌어내는 감동적인 면
 이 미흡했다.
 '솜사탕 양을 본 적 없니?'는 환상동화로서 개성적인 발상과 전개가 눈길을 끌었다. 그
 러나 개연성이 부족하고 험거운 구성과, 던져주는 메시지가 약하기에 아쉽게도 작품을
 내려놓았다.
 '파랑새 시계탑'은 환상동화로 재미있게 전개되는 동화의 메시지가 강했고, 묘사가 잘
 된 문장과 함께 문학성도 있었다. 새로운 발상으로 아이들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동심적 캐
 린터들과의 관계를 섬세하게 그려낸 점이 돋보였다. 꾸준히 정진하여 동화작가로 대성하
 기를 바란다. 좋은 작품을 보내주신 다른 분들에게도 격려와 위로를 드리며 다음 기회에
 도전하기를 바란다.

시 부문 심사평

언어·수사 과잉시대, 오랜만에 만난 여백의 감각



손택수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졸업
 ▲1998년 한국일보신춘문에 등단
 ▲신동엽창작상, 올해의 젊은예술가 상 등 수상
 ▲시집 '떠도는 먼지들이 빛난다' 등 다수

시는 뜻과 이미지에 기대면서도 뜻과 이미지를 넘어서는 시적 울림이 있어야 한다. 뜻과
 이미지가 건축물이라면 울림은 건축을 있게 하는 여백의 공간이다. 대상과 현실을 해석하
 면서도 여백을 품고 있는 언어는 지금 여기의 시를 두근거리게 미지의 상태로 있게 한다.
 재래의 서정시들로부터 아슬아슬한 언어실험, 현실에 대한 짙은 묘사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개성의 향연을 뒤로 예심을 통과한 20여편의 작품 중 최종적으로 '표준형 인간'
 과 '우리들의 시간은 없고', '구름'이 남았다.
 먼저 '표준형 인간'은 생활 세계의 구체적 현장에서 세계의 그늘을 탐색하는 아이러니
 한 어조가 인상적이었으나 '나는 복제물이 많다' 같은 기시감 있는 문장들과 덜컹거리는
 호흡이 다소 아쉬웠다. '우리들의 시간은 없고'는 구어체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탄력있는
 이미지 운용, 세계의 그늘과 존재의 그늘을 씨줄과 날줄로 조직하는 날렵한 구성력이 돋
 보였다. 동봉한 시편들 또한 평균 이상의 고른 수준으로 안정감이 있었으나 문제는 그 안
 정감이 예측 가능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구름'은 신선한 이미지와 일품이다. 일상 공간의 대상들을 재구성
 함으로써 낯설게 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고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의 도약 또한 감탄스러
 운 데가 있다. 고고학적 상상력을 인유하는 방식에 있어 기존 흔적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
 겠으나 예상치 못한 가족사와의 결합을 통해 절제된 방식으로 감투리한 결구는 불만을
 있게 하는 긴 여운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시적공간 내에 머물던 파문이 시적공간 밖으로
 퍼져나간다. 언어와 수사가 과잉시대, 참으로 오랜만에 만나는 여백의 감각이 아닌가.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p>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p>	<p>씨브웨이 광주충장로점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18 (황금동) 직원모집 합니다. 08:00~23:00 ☎062)236-1121</p>	<p>교야전통마사지 전문점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25 2층 (남평5일시장앞대로변 새건물 2층) 최신시설완비, 남여마사지 전문점 친절 신용 분위 ☎010-9277-2011, 010-4624-8457</p>	<p>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시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p>		
<p>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올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p>	<p>그집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실험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 대표 양병학 ☎010-6648-8842</p>	<p>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p>	<p>하얀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컬러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p>	<p>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정어), 사브사브 전문점 바다정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p>	<p>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력·양력)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p>
<p>교원 빨간펜 남광주센터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수 있는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p>	<p>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p>	<p>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p>	<p>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p>	<p>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p>	<p>루팡닭강정 북구 용두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 맛, 달달한 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010-3844-7145</p>
<p>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062)263-2223</p>	<p>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p>	<p>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p>	<p>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p>	<p>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p>	<p>해피니스요양병원 북구 삼정로 142 (두암동, 청야맨션 건너편) ☎062)251-8400</p>